

광고계에도 '신바람 이박사 붐'이 일고 있다. 물론 두어개 광고 모델로 계약된 것이니 붐이라 할 것까지는 없지만, 광고는 사회의 거울이라는 점에서 이박사의 CF 등장은 흥미롭다. 관광버스용 빵짜 카세트 테이프 가수를 역대급 개런티를 주고 기용할 만큼 이박사의 인기는 지금 상한가를 치고 있다. 더구나 광고주는 잘 나가는 온라인 증권사 키움닷컴증권(www.kiwoom.com)이다.

광고계에 부는 이박사 붐

키움닷컴은 영업 개시 5개월이 채 되지 않았지만 대표적인 사이버증권사로 우뚝 자리잡은 회사다. 100% 온라인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이 회사는 수수료가 최저수준일 뿐 아니라 가입초기에는 무료다.

때문에 키움닷컴은 업계에서는 이미 출발부터 주목받는 회사였지만, 일반인들의 눈에 띈 것은 해외한 광고가 시작된 이후다. 007시리즈 예고편을 패러디한 듯 허술하고 촌스러운 포스터가 티저광고 형식으로 등장하더니, 드디어는 신바람 이박사의 본색이 드러났다. 70년대의 팝송 YMCA를 편곡한 '영맨! 자리에서 일어나라 영맨! 실적 날개 달고 가자'라는 유치한 가사가 촌스러운 춤과 함께 흘러나온다. 반짝이 의상을 입고 '좋아 좋아' '키워 키워' '호이리이이'란 장단을 쏟아내며 춤추는 이박사의 모습도 기가 막히지만 증권회사 객장에 펼쳐지는 백댄서들의 부채춤도 볼 만하다.

인터넷 기업이자 자본주의 금융의 상징인 증권회사가 하필이면 이박사를 모델로 쓴 것은 그가 인터넷 스타기 때문이다. 이미 비공식 집계 밀리언셀러(고속도로 휴게소 및 가판대 판매) 가수인 이박사가 새삼 인기를 얻은 것은 네티즌과 테크노 마니아들이 그의 음악에 열광하고 팬클럽 사이트가 인터넷에서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박사는 그야말로 인터넷에서 부상한 '언더그라운드 가수'인 셈이다.

여하튼 이 광고는 키치(kitsch)와 하이브리드(hybrid) 문화의 결정판이다. 흘러간 팝송의 유치한 개사, 변두리 극장쇼같은 부채춤 공연, 되

는대로 추는 관광버스춤, 호들갑스런 추임새가 섞인 빵짜 애드립, 뒤죽박죽 단순반복의 리듬이 닷컴기업 로고와 어우러진다. 테크노와 엔카와 트롯이 뒤섞인 이 빵짜는 그러나 나름대로 흥겹고 우리 정서에 맞는다. 이박사의 인기는 뒤죽박죽 짬뽕 문화지만 엄연한 우리 현실문화를 반영한다. 전통과 현대, 서구와 동양문화가 종적·횡적으로 뒤섞이고 덧칠된 우리 문화 자체가 하이브리드기 때문이다.

키치와 하이브리드 문화의 결정판

아브라함 몰로는 《키치란 무엇인가》(시각과언어)에서 키치는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축적된 자본주의 산물 속에 그 덧없음과 유희성을 표현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박사의 존재는 키치보다는 하이브리드와 포스트식민주의 문화에 가깝다. '식민의 기억'과 잔재는 정치·경제·문화적 영역에서 때론 고통스럽게, 때론 너무나 일상적으로 남아 있다. 이미 어느 것이 우리 것이고 어느 것이 남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교포들의 트라우마(truma:외상)도 마찬가지. 차학경의 《딕테》(토

뒤죽박죽 짬뽕문화, 즐거운 하이브리드 세상

키움닷컴증권의 CF

마정미 | 광고평론가

“키움닷컴의 CF에는 변두리 극장쇼 같은 부채춤 공연, 호들갑스런 추임새가 섞인 빵짜 애드립, 뒤죽박죽 단순반복의 리듬이 닷컴기업 로고와 어우러진다. 테크노와 엔카와 트롯이 뒤섞인 이 빵짜는 그러나 나름대로 흥겹고 우리 정서에 맞는다. 전통과 현대, 서구와 동양문화가 뒤섞이고 덧칠된 우리 문화 자체가 하이브리드기 때문이다.”



“이미 비공식 집계 밀리언셀러 가수인 이박사가 새삼 인기를 얻은 것은 네티즌과 테크노 마니아들이 그의 음악에 열광하고 팬클럽 사이트가 인터넷에서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박사는 그야말로 인터넷에서 부상한 ‘언더그라운드 가수’인 셈이다.”

마토)와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미래사), 《제스처 라이프》(중앙M&B)는 탈식민주의와 포스트모던 상황을 잘 반영한 텍스트다.

포스트식민주의의 대표적 이론가인 에드워드 사이드, 가야트리 스피박, 호미 바바, 릴라 간디 등은 공통적으로 하이브리드 사회에서의 공생을 이야기한다. 호미바바는 《Location of Culture》에서 식민지의 문화는 지배문화에 대한 저항과 모방, 잔여문화 등이 뒤섞이고 덧칠된 문화라고 한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필연적으로 섞일 수밖에 없다면 다문화 자체가 그 사회 문화의 정체성이므로 대안의 가능성도 그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